

## 병에 따라 체온도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어린이가 37도, 어른은 36도 2분이다. 이보다 2도 5분 이상이 높거나 1도 5분 이상이 낮을 때는 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는 대체로 체온이 낮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종일 체온이 일정하지는 않은데, 2도 이내의 차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열이 나는 형태도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열, 미열, 고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열 등이 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체온이 오른 채로 계속 내리지 않는다면 일본뇌염·결핵성 뇌막염·폐렴·급성 편도선염을, 갑자기 열이 나고 체온이 점점 올라가는 경우는 장티푸스·폐렴·늑막염, 갑자기 열이 나며 체온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 패혈증·신우신염, 갑자기 열이 난 뒤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높은 열이 나면 말라리아·재귀열 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미열이 있는 병으로는 폐문임파선염·폐결핵·장결핵·신장결핵·늑막염·만성 편도선염·축농증·중이

염·만성위염·방광염·요도염·치질·위십이지장궤양·빈혈 등이 있다. 미열이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가 쉽게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운동이나 목욕 이후, 여성의 경우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 미열이 날 수 있으나 병은 아니다.

### 〈열의 정도〉

- 평온 : 36도 2분
- 미열 : 36도 2분~37도 3분
- 경열 : 37도 3분~38도
- 중등열 : 38도~38도 5분
- 고열 : 38도 5분~39도 5분
- 최고열 : 39도 5분~42도 또는 그 이상

### 〈올바른 체온 측정법〉

보통 섭씨 체온계로 5분 이상을 잰다. 더 정확히 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2번을 재어 본다.

체온은 보통 겨드랑이 밑에서 재는데, 때에 따라서 입안, 사타구니 사이, 항문, 질 등에서 잴 수도 있다. 입안의 체온은 겨드랑이 밑보다 2도가량 높은 것이 정상이다. ㉔